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3년 2월 28일(화) 총 5매		
담당 부서	도 로 과	담 당 자	• 광역도로팀장 하광택 ☎440-3791 • 담 당 자 유덕근 ☎440-3796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북도면 주민, 올 10월부터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무료

- 국토부가 영종대교(23.10월~), 인천대교(25년말) 통행료 단계적 인하 추진 -
- 유 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올 10월부터 지역주민 차량 통행료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 -
- 가구당 1대(경차 1대 추가)·왕복 1회 무료 이용, 전용 하이패스도 도입 -
- 통행료 인화로 인천시 재정 부담은 큰 변동 없을 것으로 예상 -

올 10월부터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들은 차량으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오갈 때 통행료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월 27일 국민과의 약속을 중요시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및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 통행료 무료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경제여건 변화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 등을 고려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방안에 맞춰 전면무료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

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영종대교의 경우 올 10월부터 통행료를 편도기준으로 상부도로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한다. 인천대교는 공공기관 투자 여건, 금리 등을 고려해 2025년 말까지 통행료를 현행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오는 10월 국토교통부가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면,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인하된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대교는 정부에서 2025년 통행료를 인하할 예정이지만, 시는 이와 상관없이 영종대교와 마찬가지로 올 10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 통행료 5,500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통행료 전면무료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유정복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앞서, 시가 지난 24일 영종대교 상부도로에 대해 지역주민 통행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획기적으로 전면무료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지역주민 차량은 올 10월부터 영종·인천대교를 통행료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원대상은 기존처럼 가구당 차량 1대(경차 1대 추가 지원)며, 1일 왕복 1회만 지원된다.

통행료 전면무료와 함께 전국 최초의 지역주민 통행료 지원 전용 하이패스 시스템도 올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하이패스 시스템이 도입되면 요금소(톨게이트)에서의 감면 카드 접촉에 따른 불편과 이로 인한 첨두시간 교통 체증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4년부터 통행료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177억여 원의 통행료를 지원했다.

올 10월부터 지역주민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더라도 국토교통부가 통행료를 인하함에 따라 기존과 큰 차이 없는 연간 약 183억 원(영종대교 97억, 인천대교 86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2025년 말 인천대교 통행료가 추가로 인하되면 시가 부담할 예산은 더 줄어듦 것으로 예상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는 영종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었는데, 주민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깊은 관심속에 인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결정해 준 국토교통부에 시를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통행료 무료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낸 성공적인 정책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복지 증진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 >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전면무료 추진 개요

- ❖ 영종 · 용유 및 북도면 지역주민에 대한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무료를 통한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국토부 통행료 인하와 발맞춰 통행료 전면무료

○ 영종대교(상·하부) 및 인천대교 통행료 전면무료 시행('23.10. 1.~)

- 국토부의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시기('23.10.1.)에 맞춰 영종대교·인천대교 전구간 통행료 무료 실시(왕복 1회)
 - * (국토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상부도로(6,600원 → 3,200원), 하부도로(3,200원→1,900원)
 - * (인천시) 통행료 무료 시행
 - 영종대교: 상부도로(3,200원), 하부도로(1,900원) / 전면무료
 - 인천대교: 5,500원(現 3,700원→5,500원) / 전면무료

〈국토부 통행료 인하 계획〉

※ 영종대교 금년 10월부터 인하, 인천대교 '25년 말 인하 추진

- * 영종대교는 도로공사가 先투자(0.9조원)하여 금년 10월부터 인하, 인천대교(1.6조원)는 공공기관 투자여건, 금리 등을 고려하여 '25년 말 인하

○ 영종대교·인천대교 전구간 하이패스 적용('23.10.1~)

- 전국 최초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전용 하이패스 시스템 개발·도입 추진중('22. 9~)
 - ※ (기대효과) 침두시간 영업소 주변 교통정체 해소 및 청라C 연결로 교통체증 완화

□ 지원현황 ('23. 2. 현재)

- (지원근거)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중구 영종 · 용유, 옹진군 북도면 거주주민 소유 자가용 차량
 - 1가구 당 차량 1대(경차 1대 추가 지원), 1일 왕복 1회
- (지원금액)
 - 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 하부도로 3,200원 전액 지원(100%)
 - 인천대교 : 5,500원 중 3,700원 지원(68%)
 - ※ 전체 통행료 지원액(1,322억원/ 2004년~2021년), 연간 지원액(164억원/ 2021년)
- (운영기간) 공항고속도로 2030.12.31.까지, 인천대교 2039.10.23.까지 각 30년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사진출처: 신공항하이웨(주) 제공 >